



numbers

vol. 320

한국교회 돌봄 실태와 과제
교회 내 돌봄 받아야 할 대상
→ 영적 침체자/정신적 어려움 겪는 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연명의료 실태
- ②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 ③ 은퇴와 노후 생활

2026. 1. 20.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회 내 돌봄 받아야 할 대상 → 영적 침체자/정신적 어려움 겪는 자!

과거의 교회 돌봄이 주로 목회자나 일부 리더층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돌보는 '서로 돌봄' 문화가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교회 돌봄 실태와 과제 조사' 결과(한국교회 트렌드 2026, 서로돌봄 공동체)에 따르면 성도 10명 중 7명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돌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특정 직분자의 업무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담임목사의 74%가 사역 과정에서 스스로 돌봄이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답해, 돌봄의 주체로 여겨졌던 목회자들 역시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넘버즈 320호>부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10가지 주제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번 호는 첫 번째로 교회 돌봄 사역의 실태를 다룬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 성도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현실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진정한 '서로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돌봄 실태와 과제 조사

조사개요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개신교인(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 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15일 ~ 2025년 5월 22일 (총 8일간)	2025년 5월 23일 ~ 2025년 5월 28일 (총 6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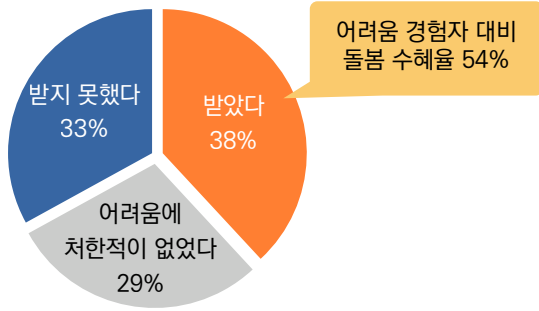
01

[교회에서의 돌봄 경험]

성도 10명 중 4명(38%), 교회에서 돌봄 받은 경험 있다!

- 영적·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로부터 돌봄 받은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전체 성도 10명 중 4명(38%)이 목회자나 다른 성도로부터 실질적인 돌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성도 기준으로 보면 돌봄 수혜율은 54%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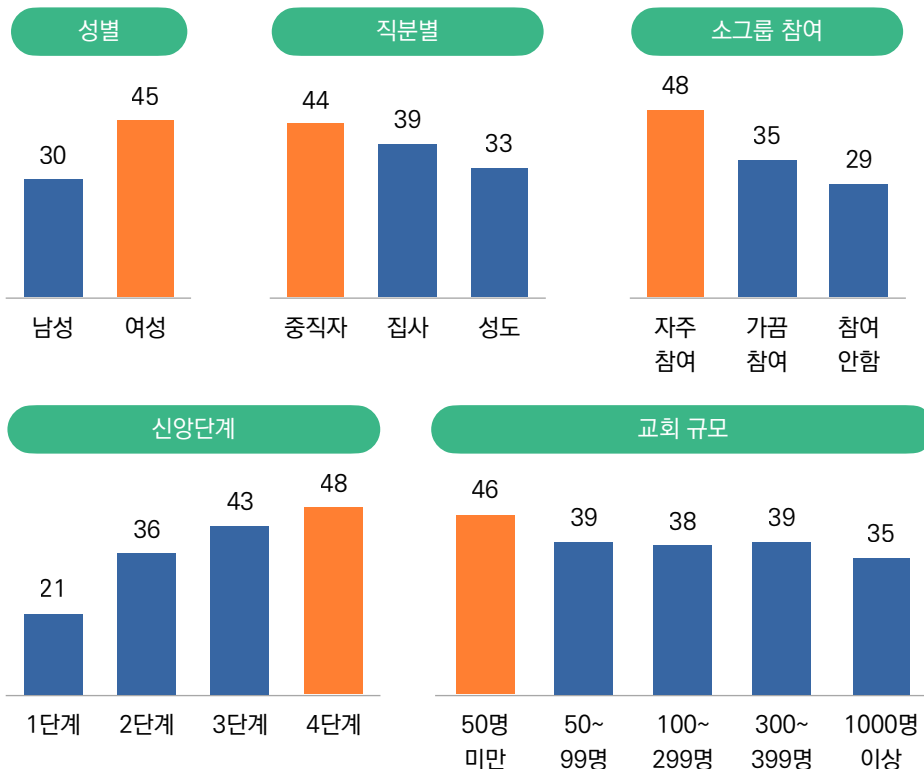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돌봄 받은 경험 여부 (성도)



여성·종직자·소그룹 참여율 높을수록 '교회 돌봄 받은 경험' 높아!

- '교회 내 돌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은 여성(45%)이 남성(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 종직자일수록 돌봄 경험률도 증가했다.
- 소그룹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돌봄 경험률이 높았고,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 또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성도의 돌봄 수혜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교회에서 돌봄 받은 경험 있다' 비율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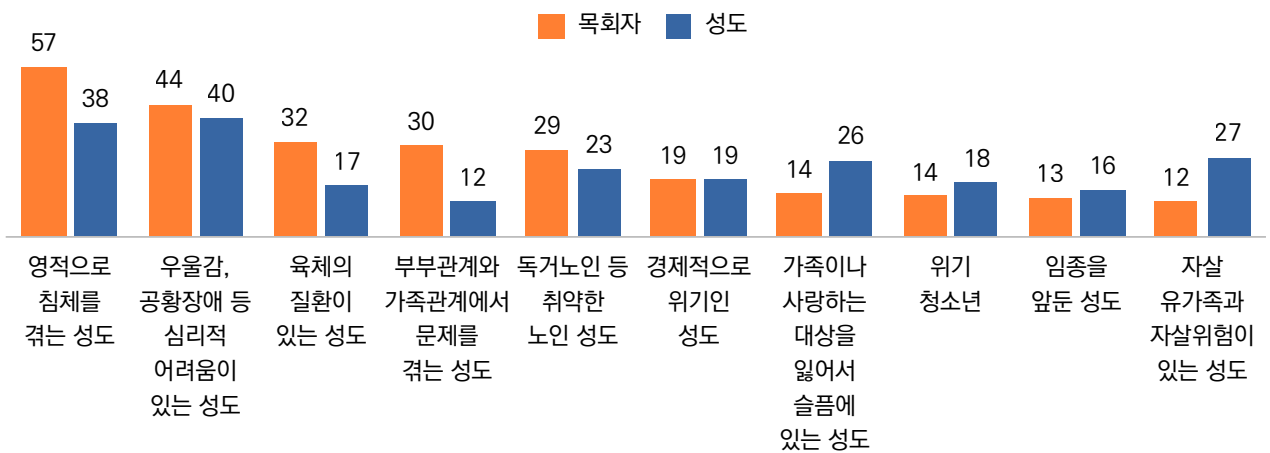
02

[교회 돌봄의 대상과 주체]

교회내 돌봄 받아야 할 대상 → 영적 침체자/정신적 어려움 겪는 자

- 교회 내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 목회자는 '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57%)를 가장 중요한 돌봄 대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44%), '육체적 질환이 있는 성도'(32%) 순이었다.
- 반면 성도는 '심리적 어려움'(40%)과 '영적 침체'(38%)를 겪는 성도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핵심 돌봄 대상으로 인식했다. 우울, 공황 등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교회 밖 문제가 아닌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돌봄 이슈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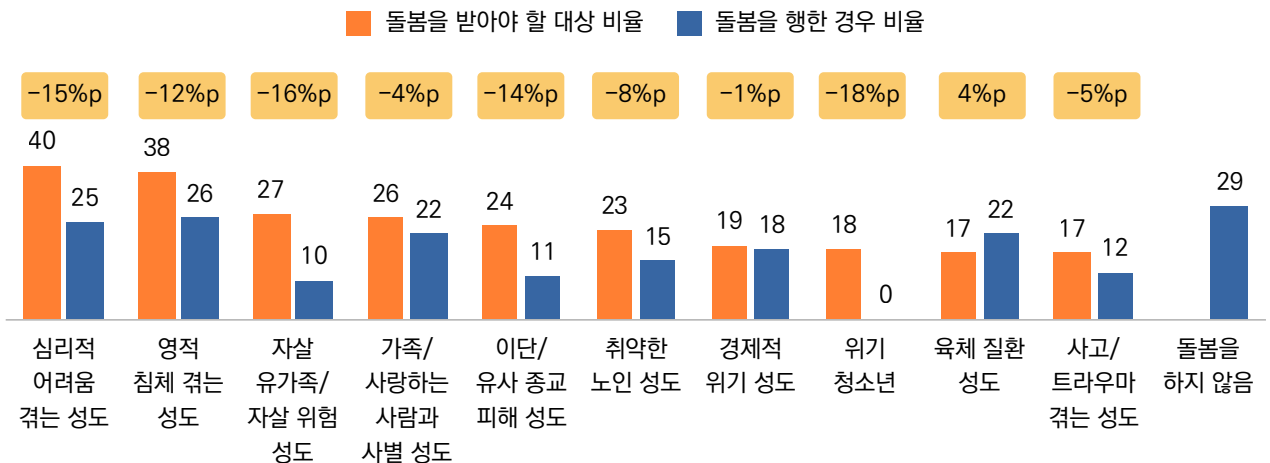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 (1+2+3순위, 목회자 기준 상위 10개, %)



교회 돌봄, 심리적/영적 침체자 돌봄에 초점 맞춰야

-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과 실제 도움을 실천한 경험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육체질환 성도 돌봄을 제외하고 돌봄 인식 대비 실천율은 낮았다.
- 육체질환 성도에 대한 돌봄은 실천율이 필요성 인식보다 높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심리적 어려움/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는 돌봄 필요성과 실천 격차가 각각 -15%p, -12%p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 돌봄이 요구되는 돌봄 수요층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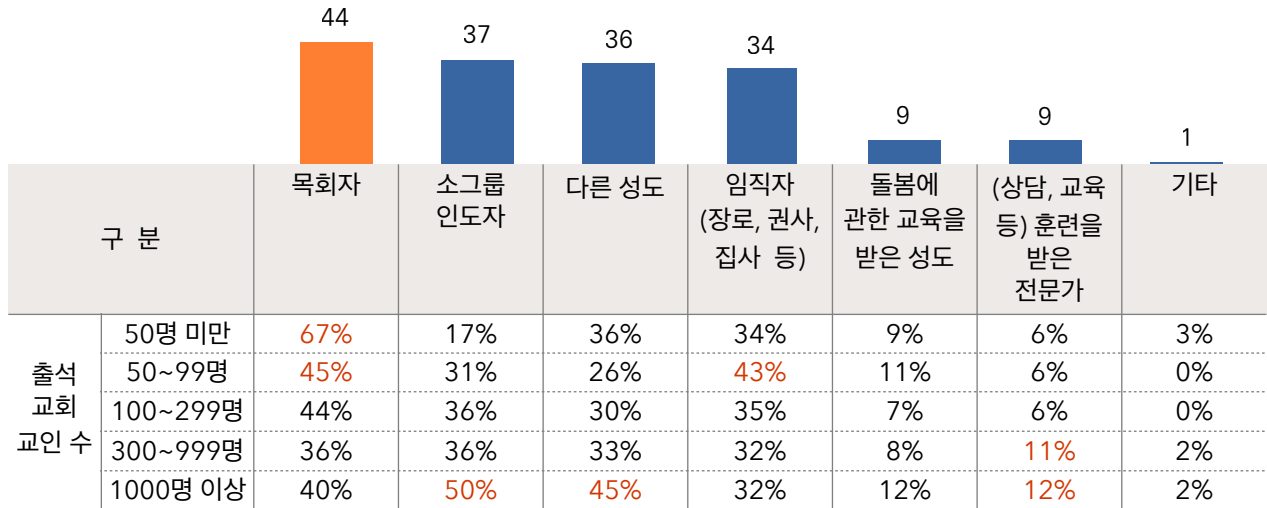
[그림] 대상별 돌봄 필요성과 실제 돌봄 실천 비율의 차이 (성도, 돌봄 받아야 할 대상 기준 상위 10개, %)



실제 교회 돌봄, 대형교회는 소그룹 인도자, 소형교회는 목회자

- 앞서 교회 돌봄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았는지 물었다(중복응답). 그 결과, '목회자'(4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그룹 인도자'(37%), '다른 성도'(36%), '임직자'(34%) 등의 순이었다.
- 이는 교회 내 돌봄이 특정 직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 성도 등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인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목회자'(67%)의 돌봄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1,000명 이상 대형교회는 '소그룹 인도자'(50%)와 '다른 성도'(45%)가 주요 돌봄 주체로 부상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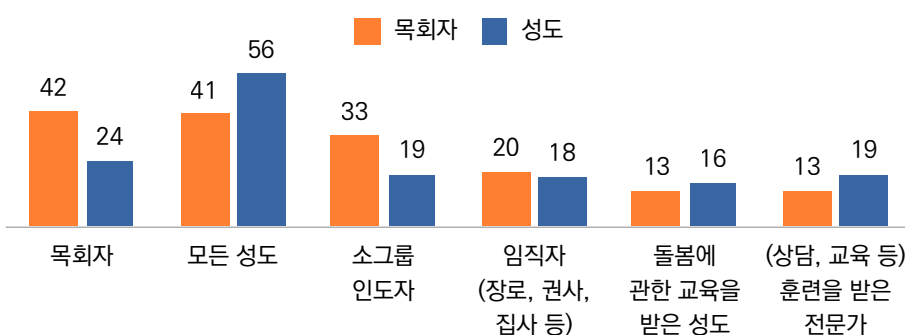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돌봄을 제공한 주체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본 성도, 중복응답, %)



성도 돌봄 주체, 목회자 중심에서 공동체(모든 성도) 책임으로!

- 교회에서 누가 성도를 돌봐야 하는가? 돌봄 주체를 묻는 질문에 목회자는 '목회자'(42%)와 '모든 성도'(41%)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이는 목회자 스스로 성도 돌봄이 자신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전제하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반면, 성도의 경우 성도의 절반 이상(56%)이 '모든 성도'가 돌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목회자'(24%), '소그룹 인도자'(19%), '훈련 받은 전문가'(19%) 응답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 이는 교회 돌봄 사역이 과거의 수직적인 목회자 중심 구조를 넘어, 평신도 참여형 돌봄 체계로 이동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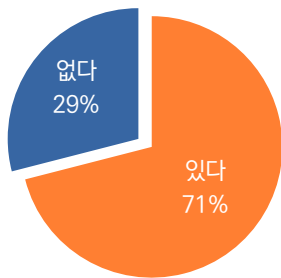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할 주체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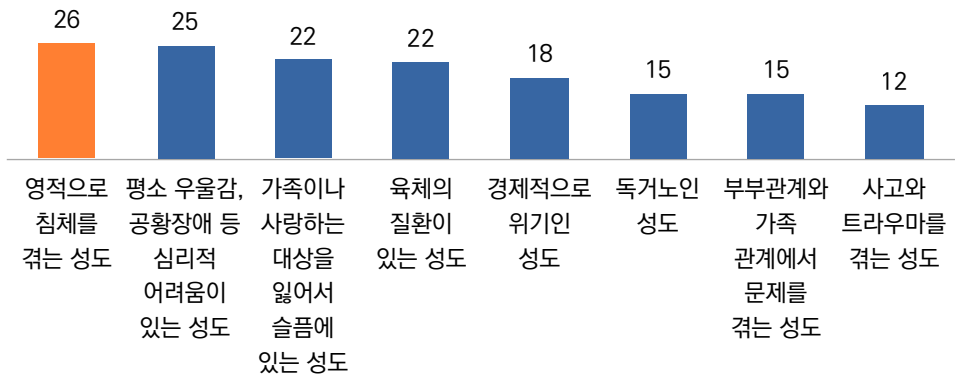
성도 10명 중 7명, 교회에서 돌봄 실천 경험 있다!

-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실제 돌봤는지를 성도(교회출석자)에게 묻은 결과, 성도 10명 중 7명(71%)은 ‘돌봄 실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돌봄을 실천한 대상(중복응답)으로는 ‘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26%),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25%),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성도’(22%) 등의 순이었다.
- 이 외에도 중독 문제, 장애·질병, 자살 유가족 등 다양한 돌봄 대상이 확인되어, 교회 내 돌봄이 영적 영역을 넘어 심리·정서·삶의 위기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에서 돌봄을 행한 경험(성도)



[그림] 교회에서 돌봄을 실천한 대상 (돌봄을 실천한 경험 있는 성도, 상위 8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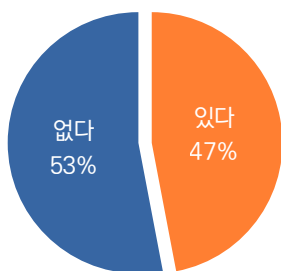


03

[돌봄에 대한 인식] 성도 2명 중 1명 가까이, 다른 성도 돌봄 준비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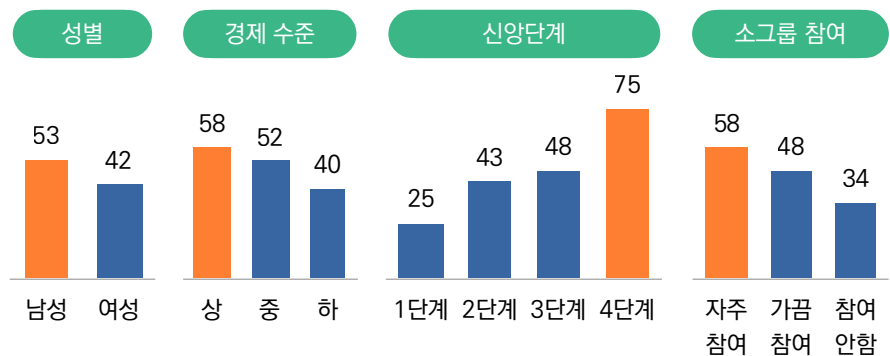
- 성도들에게 상담과 위로 및 조언을 하는 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무려 절반 가까이(47%)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 한편 성도 가운데 ‘돌봄자로서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53%)이 여성(42%)보다 높았으며, 경제 수준 별로는 상층(58%)일수록, 신앙수준이 높을수록(4단계 75%) 준비도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소그룹에 자주 참여할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이는 돌봄 인식 형성과 준비도가 신앙 성숙도, 공동체 참여 경험 그리고 삶의 안정성(경제적 안정성)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돌봄자로서의 준비 정도* (성도)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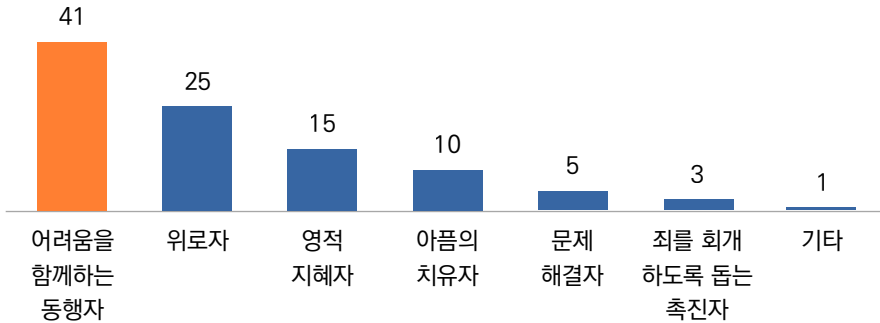
[그림] 돌봄자로서 '준비되어 있다' 비율 (성도, %)



돌봄자의 역할, 동행자/위로자!

- 그렇다면 돌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행자’(41%)를 돌봄자의 가장 큰 역할로 꼽았고, 이어 ‘위로자’(25%), ‘영적 지혜자’(15%), ‘아픔의 치유자’(10%)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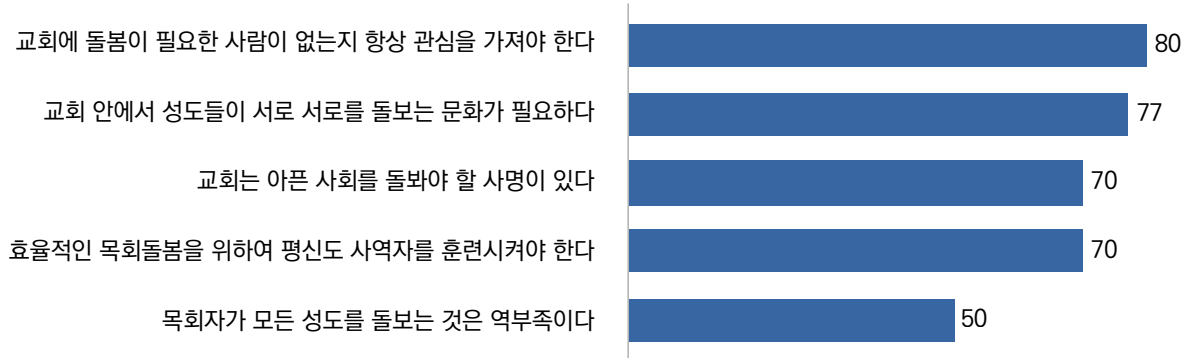
[그림] 돌봄자의 역할 (성도, %)



돌봄 위해 평신도 사역자 훈련 필요하다, 70%!

- 교회 돌봄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매우 동의 비율),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 내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다.
-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목회자의 80%가 ‘매우 동의’했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에도 77%의 비교적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 또한 ‘효율적인 목회돌봄을 위해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한다’에 대해서도 목회자 10명 중 7명(70%)이 동의해 평신도의 돌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림] 돌봄에 대한 의견 (목회자, ‘매우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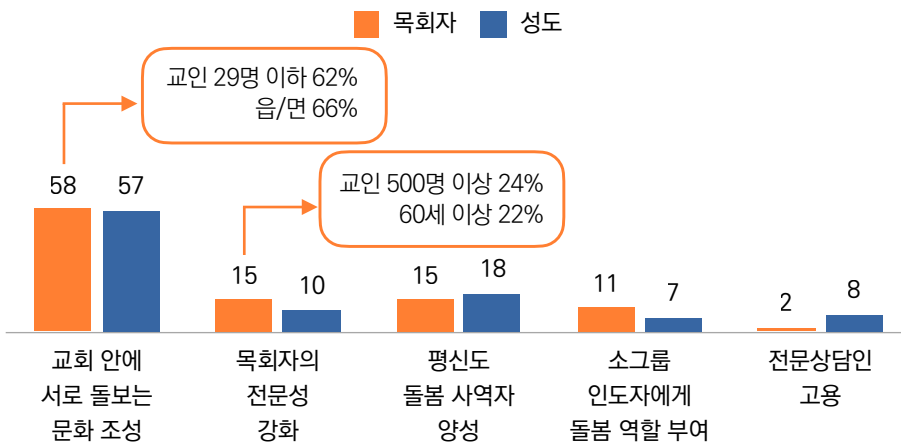
*4점 척도

04

[돌봄 필요성과 과제] 교회 내 서로 돌보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 교회가 돌봄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 문화 조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 '교회 안 서로 돌봄 문화 조성' 응답률(목회자 기준)은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29명 이하 62%), 읍/면 지역(66%)에서 높았고, '목회자의 전문성 강화'는 교인 500명 이상 교회(24%)와 60세 이상 목회자(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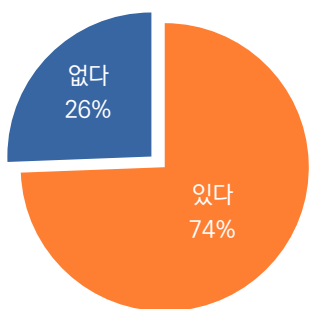
[그림] 교회가 돌봄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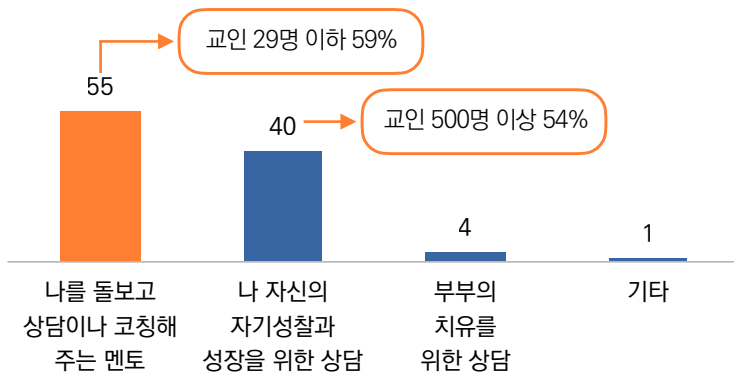
목회자 74%, 나도 돌봄 받고 싶다!

- 목회자를 대상으로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꼴인 74%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도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목회자 역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나를 돌보고 코칭해 주는 멘토'(55%)와 '자기성찰/성장을 위한 상담'(40%)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는 보면, 교인 수 29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59%)는 '코칭·멘토링'을 필요로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인 수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는 '자기 성찰·성장을 위한 상담'을 꼽은 비율이 54%로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의 돌봄 필요가 교회 규모와 사역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돌봄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여부 (목회자)



[그림] 가장 필요한 돌봄 영역 (돌봄 필요성을 느낀 적 있는 목회자, %)



이번호 요약

1. 교회 돌봄, 심리적/영적 침체자 돌봄에 초점 맞춰야!!

-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과 실제 도움을 실천한 경험을 비교한 결과, 육체질환 성도에 대한 돌봄은 실천율이 필요성 인식보다 높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심리적 어려움(-15%p)/영적 침체(-12%p)를 겪는 성도는 돌봄 필요성과 실천 간 격차가 매우 커, 보다 적극적 돌봄이 요구되는 돌봄 수요층임을 알 수 있다.

2. 성도 2명 중 1명 가까이, 다른 성도 돌봄 준비 돼있다

- 성도들에게 상담과 위로 및 조언을 하는 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무려 절반 가까이(47%)가 돌봄자로서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3. 목회자 74%, 나도 돌봄 받고 싶다!

- 목회자 4명 중 3명꼴인 74%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성도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목회자 역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공동체 돌봄과 상담 (마가렛 콘펠드 저, 기독교문서선교회(CLC))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목회 적용점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인화의 가속화와 정서적 고립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본질적 기능인 ‘돌봄’의 새로운 지표를 마주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통적인 육체적 질병 돌봄을 넘어,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영적 침체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영적 위기에 대한 높은 돌봄 필요성에 비해 실제 실천율이 저조하다는 점은, 교회가 집중해야 할 새로운 사역 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성도 2명 중 1명 가까이는 이미 타인을 돌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돌봄이 목회자 1인에게 집중된 수직적 사역이 아니라, 성도 간의 자발적 동역을 통해 ‘서로 돌봄’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돌봄의 주체로만 여겨졌던 목회자의 74%가 본인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사역 현장의 리더들을 향한 공동체적 지지 시스템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목회 현장에서 돌봄과 관련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눈에 보이는 질병뿐 아니라 성도들의 내밀한 심리적 아픔과 영적 갈급함을 예민하게 살피는 ‘정서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돌봄의 의지가 있는 성도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평신도 상호 돌봄 사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목회자 또한 돌봄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특히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코칭 또는 멘토링이 활발해져 전체적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연명의료 실태
2.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3. 은퇴와 노후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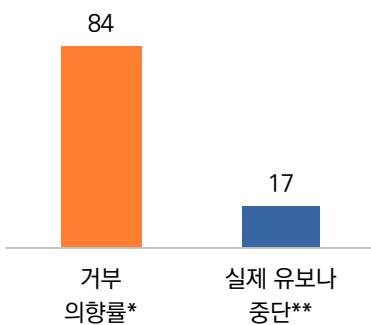


[연명의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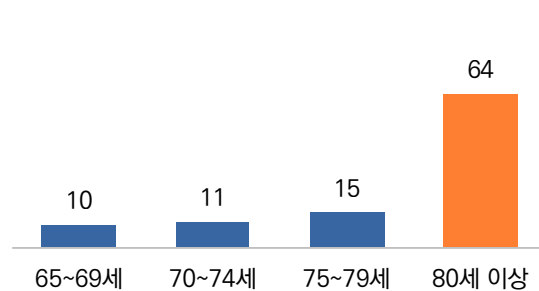
65세 이상 고령층, 연명의료 거부 84%, 실제 중단은 17%

- 최근 한국은행은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가 보고서를 통해 연명의료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본다.
- 먼저 연명의료 거부 의향과 실제 중단 수준을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부분(84%)이 회복 가능성이 없을 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환자 개인의 의향과 실제 의료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명의료 시술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80세 이상은 연명의료 시술 비중이 64%에 달했다.

[그림] 연명의료 거부 의향 vs 실제 중단
(2023, 65세 이상 고령층*/사망자**, %)



[그림] 연명의료 시술 연령별 비중
(2023, 65세 이상 사망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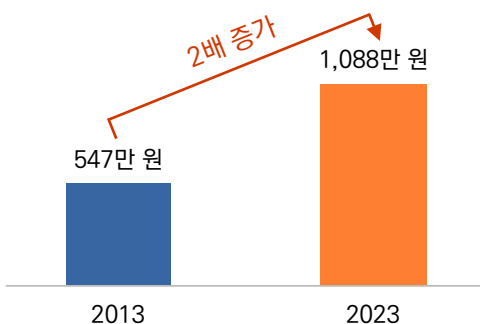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BOK 이슈노트 2025-38호), 2025.12.11.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 1인당 1,088만 원!

-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를 ‘생애말기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2013년 547만 원에서 2023년 10년 사이 1,088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 이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순 본인부담금으로, 취약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



※출처 : 한국은행,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BOK 이슈노트 2025-38호), 2025.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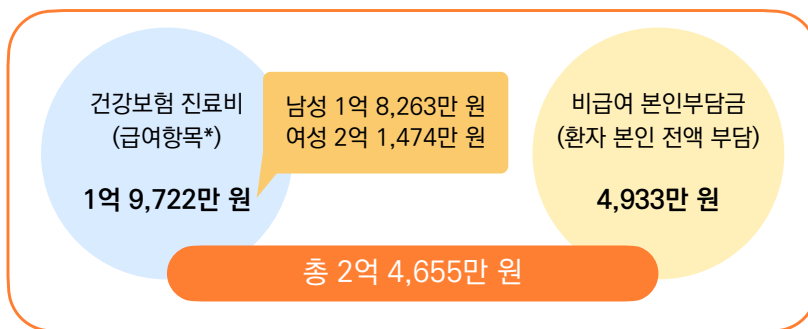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의미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한국인 1인당 생애 의료비, 약 2억 5천만 원

- 우리 국민들은 전 생애에 걸쳐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할까?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의료비 실태를 살펴본다.
-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 4,655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크게 급여(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급여(개인 부담)로 구분된다.
-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으로 성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2억 1,474만 원)이 남성(1억 8,263만 원)보다 약 18% 더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국민 1인당 총 생애 의료비 (2023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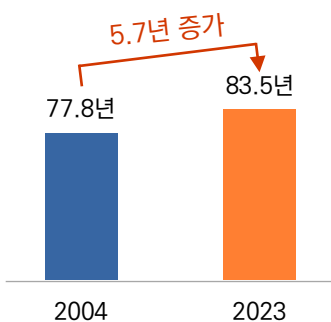
*급여항목 = 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Note) 2023년 기대수명 (여성 86.4세, 남성 80.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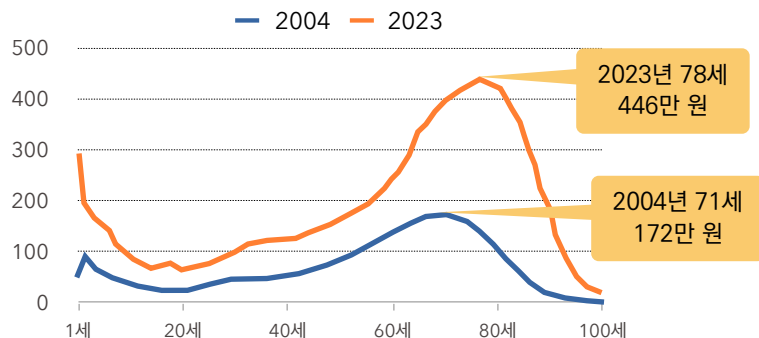
생애 의료비 지출 정점, 2004년 71세→2023년 78세로 늦춰졌다!

- 생애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시점을 추정한 결과, 2004년 71세(172만 원)에서 2023년 78세(446만 원)로 7년 더 늦춰졌다. 최대 지출액도 2.6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도 길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보다 고령층의 치료·관리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그림] 기대수명 (2004 vs 2023)



[그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2004 vs 2023, 만 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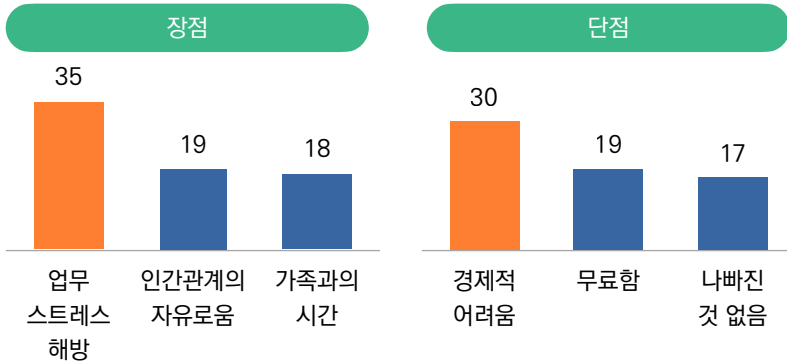
Note) 연령별 누적 금액이며, 2004년 금액은 비교를 위해 2023년 가격으로 변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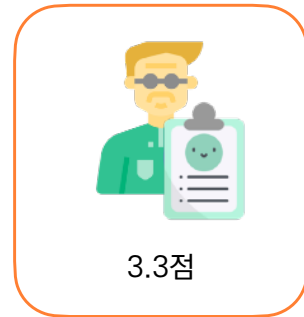
[은퇴와 노후 생활] 은퇴 후 '업무 스트레스' 대신 '경제적 어려움' 온다!

-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은퇴시장 리포트'를 통해 은퇴자들이 느끼는 생생한 노후의 민낯을 살펴본다.
-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 장·단점을 물었을 때, 장점으로는 '업무 스트레스 해방'(35%)을, 단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0%)을 가장 높게 꼽았다.
- 다만 이들의 은퇴 후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림] 은퇴 후 장·단점 (50세 이상 은퇴자, 각각 상위 3개, %)



[그림] 은퇴 후 생활 만족도 (50세 이상 은퇴자,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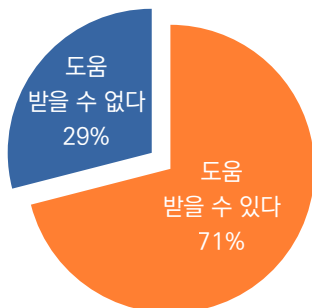
※출처: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종합백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2026.01.08.

노인 10명 중 3명, '아프거나, 이야기 상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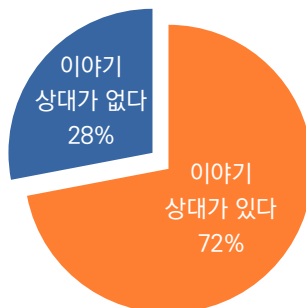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이야기 상대가 있는' 비율은 각각 71%, 72%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다'(29%)와 '이야기 상대가 없다'(28%)도 10명 중 3명꼴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 노인들이 몸이 아프거나, 대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관계망이 여전히 부족한 점에 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고령자의 사회관계 (65세 이상)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출처: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종합백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2026.01.0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8호 \(2026년 1월 3주\)](#)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국내 원전 안전성, 주변국 정상 개별 호감 여부, 미국-베네수엘라 사태 인식

사회 일반

[국민 10명 중 9명 공감해도... 장기기증 등록은 15% 미만](#)

헬스조선_2026.1.13.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작년말 320만명 넘어서](#)

연합뉴스_2026.1.19.

[국민 58% "우리사회 부패...정당-입법 가장 심해"](#)

동아일보_2026.1.13.

[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사과'...2위 탄산음료](#)

연합뉴스_2026.1.15.

[\[기획\] 체중 조절, 관심과 현실 사이 - 체중 조절 인식과 실태](#)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1.13.

[노동력 아닌 사람이 온다], (중앙일보)

[영암 5명 중 1명 이민자...주민 77% "우리 이웃" _2026.1.12.](#)

[온갖 오물 검정봉지째 버린다... "쓰레기 무덤" 비명 터진 이곳 _2026.1.12.](#)

["자들 덕에 먹고사는 거 아녀"... 외국인 천국, 영암의 비결 _2026.1.12.](#)

[3·1운동 성지서 이슬람교 기도소리...발안시장의 '낮선 변신' _2026.1.12.](#)

["의대 지망생이 피자집 카운터 보더라"...韓 불시착 그들의 전쟁 _2026.1.13.](#)

["영주권, 캐나다 간 동창은 5년...난 한국서 20년 걸렸어요" _2026.1.13.](#)

[한 반에 학생 국적만 10개...답임은 실신했다 _2026.1.13.](#)

["재산 챙겨 도망가려고 애 안 넣는데"...쓸쓸한 결혼이민자들 _2026.1.13.](#)

[UN '출신국 떠나 실질적 지원' 권고... "보장, 국민→사람 넓혀야" _2026.1.14.](#)

["세금도 다 내는데" 팔 잃은 25년 한국살이 영주권자의 눈물 _2026.1.14.](#)

[차로 뒤쫓으며 "바보XX, 집에나 가"...이주민 25% 차별 경험 _2026.1.14.](#)

[잘려나간 '코리안 드림'...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 한국인 3.6배 _2026.1.1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아동 · 청소년 · 청년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된다...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붕괴](#)

연합뉴스_2026.1.13.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동아일보_2026.1.14.

["용하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암울한 현실에 점집 찾는 2030](#)

한국경제_2026.1.18.

경제 · 기업

[\[팩트체크\] 공무원 이탈 막자...일본은 검직 완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연합뉴스_2026.1.14.

[자영업자 3명 중 1명, "소득 절반 가까이는 빚 갚는 데 쓴다"](#)

조선일보_2026.1.14.

[육아휴직, 대기업은 "당연" 중기는 "눈치"... 온도차 여전](#)

동아일보_2026.1.13.

[직장인 78%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 심화"](#)

연합뉴스_2026.1.18.

건강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은?](#)

동아일보_2026.1.15.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동아일보_2026.1.18.

기독교 · 종교

[거세지는 교회 탄압...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

GOOD TV NEWS_2026.1.1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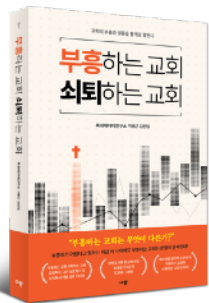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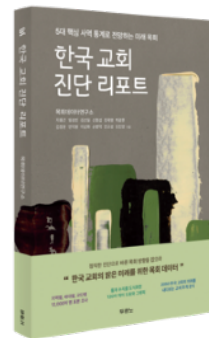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